



일상 속 우리의 인권

다시, 생각하기

사람, 자연, 환경권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이는 제8차 헌법 개정(1980년)에 포함된 권리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국가와 국민 모두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90년대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수의 환경정책이 제시 및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환경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고, 동시에 더욱 적극적인 환경책임을 강조되어 왔습니다.

일련의 변화는 환경권이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이를 개개인에게 인정되는 실제적 권리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환경권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삶의 질을 해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는 인간존엄과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연이 무너지면, 인류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조은지 글 발췌]

(알고갑니다) 세계인권선언이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5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반성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모두 고려하여 187번의 공식회의, 1천4백번의 토론 등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권규범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영문, 국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소통/참여/인권]⇒[인권공간]⇒[인권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찾아보기

인간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탄소 사회의 종말
The End of Fossil Society



탄소 사회의 종말

인간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

『탄소 사회의 종말』은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 사회·정치적 차원을 중심에 두고 기후위기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 책에서는 기후위기가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불평등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개인·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된다.



변호인

2013 / 한국 / 12세이상 관람가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변 그의 인생을 송우석씨 바꿀 다섯 번의 공판이 시작됐다

1980년대 초 부산.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던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10대 건설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앞에 둔 송변. 하지만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변.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변은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는데...

인권용어 이해하기

◆ 핑크텍스(pinktax)

• '핑크텍스'는 2015년 미국에서 생긴 신조어로 의류나 신발, 미용실 이용금액 등 같은 상품·서비스라도 남성용보다 여성용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주간행사
안내



1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인권 토크쇼

- 일 시: 2020. 12. 11.(금) 15:00 ~ 17:00
- 장 소: 한라도서관 시청각실
- 참여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페이스북 라이브 송출

2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 전시

- 기 간: 2020. 12. 9. ~ 12. 18.
- 장 소: 3개소(도청 1청사, 도의회, 한라도서관)